

광주시-지멘스, “첨단산업 미래 파트너로”

강기정 시장, 한국지멘스 부사장 접견...전략적 파트너십 논의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팩토리·디지털인재양성 등 협력 모색
강 시장, 내달 독일 지멘스 본사 방문...“세계적 기업과 협력”

광주시와 첨단기술 강국 독일의 대표기업인 지멘스(SIEMENS)가 첨단산업 미래 파트너로 만난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7일 오후 시청 접견실에서 티노 힐데브란트(Tino Hildebrand) 한국지멘스 부사장 및 디지털 인더스트리(Digital Industries, DI) 부문장을 만나 인공지능(AI), 미래차(모빌리티), 반도체 등 광주 산업과 연계 가능한 전략적 파트너십 방안을 논의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조기업의 경쟁력은 운영기술(OT)과 정보기술(IT)의 결합에 있는 만큼 광주 제조업 및 중소기업 지원 협력 방안 논의도 이어졌다. 광주시와 지멘스의 공통 관심사인 디지털 인재 양성을 주제로 광주시-지멘스-대학 등과 협력 방안도 거론됐다. 광주시가 현재 추진하는 인재양성이 구글클라우드코리아, 엔에이치엔(NHN), 마이크로소

프트(MS) 등 정보기술(IT) 중심의 인재 양성이라면 지멘스는 운영기술(OT) 중심의 디지털 엔지니어링 인재를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 강 시장과 티노 힐데브란트 부사장은 다음달 독일 뉘른베르크에 위치한 지멘스 본사에서 만나 디지털 트윈에 기반한 시설을 둘러보고,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티노 힐데브란트 부사장은 “광주시는 인공지능(AI)과 미래차 산업은 물론, 중소기업 지원에도 많은 역할을 할애하고 있는 만큼 광주시·산하기관과 지멘스가 협력한다면 좋은 상승효과(시너지)가 기대된다”며 “다음달 독일 본사에서 디지털 인재 양성 등 미래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가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

해서는 기업의 투자와 관심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생애주기별 인재양성 사다리를 완성시키는 것이다”며 “구글클라우드, 엔비디아 등에 이어 세계적 기업인 지멘스와 산업 분야 협력은 또 한 번 광주의 멋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베를린과 뮌헨에 본사를 둔 지멘스는 산업, 인프라, 운송,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술 기업이다. 공장의 자원 효율성 개선, 탄력적인 공급망 관리, 스마트 빌딩 및 그리드는 물론, 보다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운송 서비스와 첨단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에 이르기까지 지멘스의 기술은 고객을 위한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지멘스는 현실과 디지털 세계를 결합함으로써 고객이 산업과 시장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수십억 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7일 오후 시청 접견실에서 티노 힐데브란트(Tino Hildebrand) 한국지멘스 부사장 및 디지털 인더스트리(Digital Industries, DI) 부문장을 만나 인공지능(AI), 미래차(모빌리티), 반도체 등 광주 산업과 연계 가능한 전략적 파트너십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 제공

구의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1950년대 국내에 진출한 한국지멘스는 선진기술과 글로벌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 협력과 적극적인 투자, 개발 활동에 앞장서고 있

다. 또한 국내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한편, 한국의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 여러 대학들과 산학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4차산업의 일환으로 현실 세계와 똑같은 가상 세계를 만들고,

현실 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등을 가상 세계에서 미리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하면서 보다 높은 생산성과 낮은 불량률을 선보이고 있다. /이문수 기자

전남도, 천혜 자연 활용 ‘골프 중심지’ 도약

전라남도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한겨울 온화한 기후 등 천혜의 자연 조건을 활용한 골프 스포츠 중심지 조성을 위해 ‘골프장 건설 지원계획’을 수립, 내수 진작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본격 나섰다. 전남도는 ‘골프장 건설 지원계획’에 따라 수요 맞춤형 골프장 건설과 실질적 골프 대중화, 지역 주민과 사업 시행자 갈등 해소를 위해 ▲사업시행자와 인·허가권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골프장 건

설 지원 전담조직(T/F) 구성·운영 ▲행정절차 개선 및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인·허가 기간 단축을 지원한다. 또 ▲주민·시행자·허가권자 간 협의체 구성 및 상생방안 마련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타 지역 방문객 유치를 위한 이용요금 인하 등을 중점 추진한다. 현재 전남에서 추진 중인 골프장은 총 13개소다. 이 중 4개소는 투자자가 계획 수립과 함께 토지 매입

을 하고 있으며, 9개소는 도 및 시군에 인·허가 신청서가 접수돼 관계 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골프장 건설 지원 전담 조직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 초기 단계인 입지 검토부터 컨설팅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장애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등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 주민·투자자·자치단체장

간 협의체를 구성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미리 방지한다. 이밖에 개발사업 발목을 잡는 규제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 등에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신속·정확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골프장 건설 절차와 실무 내용을 담은 업무편람 ‘함께 만드는 골프장’을 발간해 관계 행정기관 및 투자자들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골프산업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16조 원으로 스포츠산업(80조) 중 단일종목 최대인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4.7%의 빠른 성장세

를 보이고 있다. * 시장규모(원) : 2016년 14조, 2018년 15조, 2021년 17조, 2026년 22조(추정) 또 골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스크린골프장 등으로 접근성이 향상돼 엠지(MZ)세대, 여성 중심의 신규 수요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 골프인구(명) : 2015년 267만, 2017년 306만, 2021년 474만, 2026년 600만 추정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은 514개소며 전남에선 39개소가 운영 중이다. 전남은 지리적 특성상 해양성 기후로 사계절 이용

이 가능하고 타 지역에 비해 산림 비율이 낮아 골프장 건설에 최적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전남 산림 비율(2020년 산림청 통계자료 기준) : 55.6% (전국 평균 62.7%)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수요 맞춤형 골프장을 조기에 건설해 골프장 간 경쟁을 통해 소비자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각종 전지훈련 및 대회를 유치하는 한편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용운 기자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맨 파워

나이 들어도 자신 있는 남자 Project

살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 있는 살!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